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키움증권

미 증시, 매파적 7월 FOMC, 빅테크 실적 경계심리 등으로 약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9일(수) 미국 증시는 한국 반도체주 폭락 여진에 따른 마이크로소프트(-10.1%) 등 미국 반도체주 급락 속 MS(-0.7%), 메타(-1.3%) 실적 경계심리, 미-이란 갈등 고조에 따른 유가 재상승, 매파적이었던 7월 FOMC 등으로 하락 마감(다우 -2.2%, S&P500 -1.5%, 나스닥 -1.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3%).

7월 FOMC에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인상을 주장한 3명의 위원이 등장한 가운데 케빈 워시 기자회견이 시장에서는 매파적으로 해석된 모습. 워시 의장은 최근 높아진 시장금리가 스스로 금융 긴축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연준으로 하여금 목표 달성에 안도감을 주고 있다고 평가. 이 같은 워시 의장의 발언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연준이 시장금리 상승을 용인하게 만들 것이라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실정.

다만, FedWatch상 연준의 금리경로가 덜 매파적으로 수정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7월 FOMC 전에는 12월까지 연 최대 2회 금리인상 전망이 우세했지만, 현재는 1회 인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 7월 FOMC를 치르면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4.6%대 후반까지 급등한 것은, 이란 군사충돌 재개에 따른 유가 상승도 영향을 준 측면이 존재. 따라서, 이번 7월 FOMC는 쇼크 수준의 매파적인 동결로 보기엔 어려운 만큼, 현재 레벨에서 10년물 금리가 추가 급등하면서 증시 전반에 걸친 긴축 발작을 재연시킬 확률은 낮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

장 마감 후 발표된 MS와 메타의 실적은 엇갈린 결과를 기록. MS는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을 상회했으며, 본업인 애저 클라우드 사업 성장률(YoY, 43% vs 컨센 39.6%)도 호조세를 기록. 잉여현금흐름(FCF)도 +196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투자 확대에도 현금창출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함에 따라 현재 시간외에서 8%대 강세를 시현 중에 있음.

반면, 메타의 경우 매출액 컨센 상회, 26년 CAPEX 가이드라인 유지(1,300~1,450억달러, 하단은 기존 1,250억달러에서 상향)에도, EPS(법률비 및 퇴직비 일회성 비용 반영)와 일일 활성 이용자수가 컨센을 하회. 물론 본업인 광고 사업은 단가 상승, AI 기반 타겟 광고 개선 등으로 27%(YoY)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FCF가 +7.8억 달러(YoY -91%)로 감소했다는 점이 수익성 우려를 자극. 이 여파로 시간외에서 8%대 급락 중에 있는 상황.

이처럼 MS와 메타 모두 AI 투자 의지와 본업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메모리 수요에 긍정적이지만, 수익성을 둘러싼 시장의 서로 다른 해석이 일시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음. 7월 FOMC 여진, 내일 예정된 아마존 실적 대기심리도 개입이 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금일 국내 증시 및 미국 증시 본장에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음에 대비할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컨센 하회, 미-이란 갈등 재고조 속 개인과 외국인의 투매 물량이 출회된 여파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폭락 마감(코스피 -6.0%, 코스닥 -6.1%).

금일에는 7월 FOMC 및 지정학 불확실성, 미국 반도체주 동반 약세, MS와 메타의 시간외 주가 혼재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다만, 최근 연쇄 폭락으로 과매도 국면에 진입한 만큼, 장 초반 변동성 확대 이후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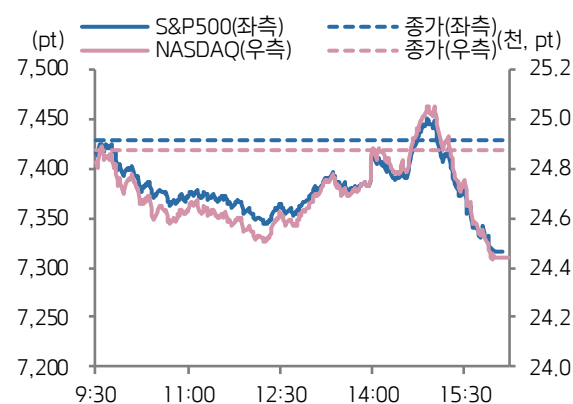
지난 2거래일 연속 코스피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적은 코스피 역사상 최초였으며, 2거래일 연속 장중 10%대 폭락한 것도 전례 없었기 때문. 물론 선행 PER 밸류에이션이 현재 4배 후반(29일 기준 4.82배)까지 내려갔지만, 이미 수 차례 밸류에이션상 바닥을 잡는 작업이 무위로 돌아갔던 경험도 간과할 수 없기는 함.

그러나 단순 주가 하락률 관점에서 접근해봐도, 2거래일 연속 서킷브레이커를 기록했다는 점이나, 이번 7월 수익률이 -33%대로 역대 최저 월간 수익률을 경신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과매도 및 바닥권 진입의 신호라고 판단. 28일자 <코스피 폭락 코멘트: 바닥의 신호 & 반등의 촉매>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월간 20% 이상의 급락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초대형 악재가 나타날 때 경험했던 현상임.

현재는 주도주인 반도체를 둘러싼 부정적인 내러티브(이익 피크아웃, AI 투자사이클 종료 등)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일 뿐, 실적 추정치가 본격적으로 꺾이는 등 펀더멘털 훼손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령, 2026년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 약 967조원대로 고점인 970조원 대비 3조원 하락하긴 했지만, 8월 초까지 예정된 대형주 실적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재차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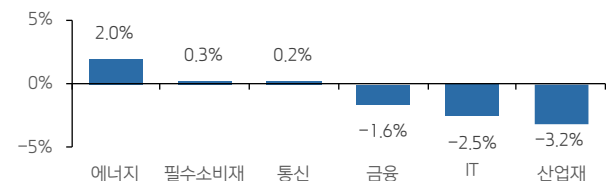
결국, 최근의 연쇄 폭락은 다분히 비이성적인 현상이었음을 시사. 전일 장중 코스피가 -12%에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축소하며 -5%대로 마감한 것도 과매도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였다고 판단.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증시 추가 하락 -> 투매 증폭 -> 하락 가속”과 같은 극단적인 비관 시나리오보다는 “최근 폭락분 되돌림 -> 저가 매수세 유입 -> 반등 탄력 강화”의 회복 시나리오를 우선 순위로 두고 가는 것이 적절.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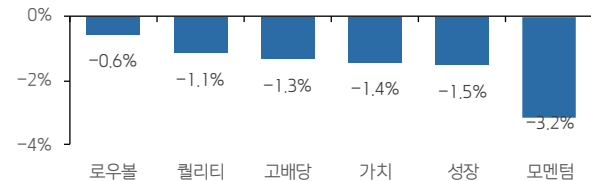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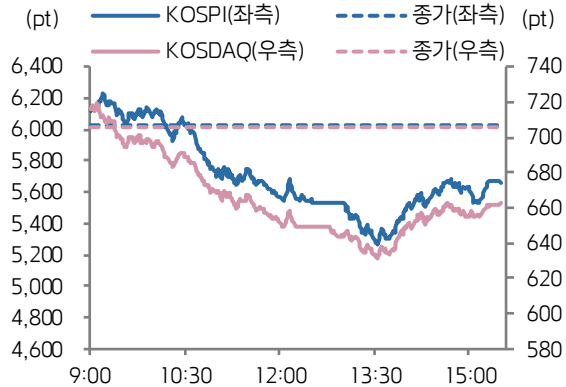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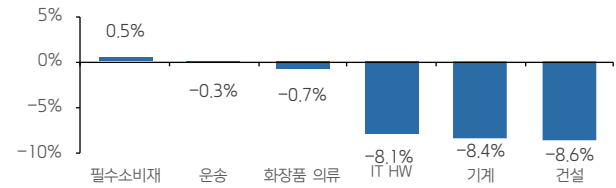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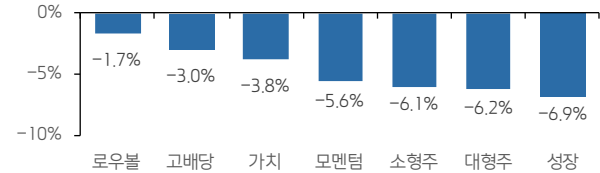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38.19	-0.56%	+24.4%	GM	89.40	-1%	+9.94%
마이크로소프트	390.54	-0.71%	-19.25%	일라이릴리	1,210.02	-0.87%	+12.59%
알파벳	336.71	+0.9%	+7.58%	월마트	114.22	+0.99%	+2.52%
메타	585.61	-1.31%	-11.28%	JP모건	344.71	-3.53%	+6.98%
아마존	226.65	-1.82%	-1.81%	엑손모빌	156.75	+2.42%	+30.26%
테슬라	298.32	-2.97%	-33.67%	셰브론	191.86	+2.28%	+25.88%
엔비디아	190.01	-3.55%	+1.88%	제너럴일렉트릭	114.22	+1%	+2.5%
브로드컴	370.32	-2.78%	+7%	캐터필러	782.71	-6.91%	+36.63%
AMD	429.56	-5.51%	+100.58%	보잉	214.01	-3.41%	-1.43%
마이크론	739.00	-9.94%	+158.93%	넥스트에라	88.46	-0.9%	+10.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5,663.24	-5.98%	+34.39%	USD/KRW	1,443.45	-0.67%	+0.27%
코스피200	887.20	-6.18%	+46.41%	달러 지수	100.85	-0.56%	+2.57%
코스닥	662.68	-6.12%	-28.4%	EUR/USD	1.15	+0.7%	-2.38%
코스닥150	1,117.20	-6.15%	-27.8%	USD/CNH	6.76	-0.16%	-3.08%
S&P500	7,316.15	-1.52%	+6.88%	USD/JPY	163.41	-0.27%	+4.28%
NASDAQ	24,442.94	-1.74%	+5.17%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51,594.14	-2.19%	+7.35%	국고채 3년	3.803	-2.7bp	+85.2bp
VIX	20.66	+13.45%	+38.19%	국고채 10년	4.255	-3.7bp	+87bp
러셀2000	2,906.31	-1.61%	+17.1%	미국 국채 2년	4.273	-1.5bp	+80bp
필라. 반도체	10,447.49	-5.33%	+47.5%	미국 국채 10년	4.677	+7.1bp	+51bp
다우 운송	21,461.86	-1.95%	+23.65%	미국 국채 30년	5.201	+11.2bp	+35.7bp

상해종합	3,828.47	+0.4%	-3.54%	독일 국채 10년	3.160	+5.6bp	+30.5bp
항생 H	8,623.52	+2.22%	-3.26%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7,654.60	+1.16%	-8.88%	WTI	84.46	+6.56%	+48.15%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90.74	+7.91%	+49.12%
Eurostoxx50	6,248.84	-0.65%	+7.9%	금	4,097.00	-0.04%	-8.9%
MSCI 전세계 지수	1,090.94	-1.19%	+7.52%	은	57.86	+0.99%	-18.04%
MSCI DM 지수	4,744.18	-1.16%	+7.08%	구리	627.35	-0.77%	+10.41%
MSCI EM 지수	1,559.64	-1.45%	+11.06%	BDI	2,664.00	-1.19%	+41.93%
MSCI 한국 ETF	144.21	-4.78%	+48.33%	옥수수	471.75	-1.82%	+2.44%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660.75	-0.26%	+21.07%
비트코인	63,444.73	-0.62%	-27.61%	대두	1,192.75	-2.23%	+12.05%
이더리움	1,882.23	-1.78%	-36.79%	커피	308.55	-2.76%	-1.9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29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